



여수 송기홍



영암 서희권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춘



회순 박순철

화순군, 농기계임대사업 전국 우수사업소로 선정

노후농기계 교체 사업비 국비 1억 확보



화순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하는 '2017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평가'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비 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 위탁평가 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전국 141개 시·군 433개소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대상으로 7개 항목, 17개 평가지표로 실시되었다.

화순군은 농기계 임대실적, 이용 농가수, 임대료 수준, 인력 운영 등 전체 평가 항목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 국비 1억원을 지원 받게 되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고가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 부담을 줄이고 벼농사에 비해 낮은 밭농업 기계화율을 높여 모두가 잘사는 명품 화순 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순군 농업기계임대사업소는 능주면(본소)과 동북면(본소) 2개 사업소에 65종, 380대에 임대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7. 7월부터 전기종 배종서비스 실시, 오지마을 농기계 순회수리, 영농기인 3~11월 까지 평일 확대 근무 및 공휴일 근무, 농업기계 안전사용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계임대사업소 ☎ 061-379-5464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박순철 기자

장흥 수문~고흥 녹동간 연륙연도교 국책사업 추진 촉구

"특량민권 관광 인프라 획기적 개선 시급" 백광철 장흥군의원, 6일 군정질문 통해 주장

남해안 다도해 해상 관광벨트에 속하는 특량민권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장흥 수문~특량도~고흥 녹동간 연륙연도교 건설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조속히 착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흥군의회 백광철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 군정질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장흥~고흥 연륙연도교가 완공되면 두 지역뿐 아니라 인접한 보성·강진 등 특량민권 4개 군의 관광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돼 전남 남부권의 동반성

장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남해안 관광프로젝트는 부산에서 고흥까지만 대상지역으로 발표되고 특량민권의 보성, 장흥, 강진은 제외됐다"며 "전남 다도해권의 핵심지역인 특량민권이 소외되는데 대한 대책과 원인은 무엇인가"고 따졌다.

이어 "장흥~고흥 녹동간 연륙연도교가 건설되면 장흥에서 녹동항까지 1시간 20분 약 90km 걸리는 거리가 10분, 여수까지는 40분 정도로 단축돼 남해안 관광시대를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또 장흥~완도고속도로 영암 급정IC~장흥 간 4차선 확장 및 장흥읍~회진 간 국도 23호선 확장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을 촉구했다.

한편 장흥은 전남 중남부권의 거점도시이면서 전남 도내 22개 시·군 중 유일하게 광주와 연결되는 4차선 직통도로가 없어 군민은 물론 관광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백광철 장흥군의원

여수시,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확대

이달부터 고정식 CCTV에서 이동식 단속차량까지 예고

여수시가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시민 중심 교통정책을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불법 주정차 사전알림서비스 대상이 고정식 무단단속시스템(CCTV)에서 이동식 단속 차량까지 확대됐다.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는 이름 그대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문자로 예고하는 제도다. 주정차 차량의 신속한 이동을 유도해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동안은 차량이 고정식 무단단속시스템 단속범위 내 주정차해 있을 경우 사전알림 서비스를 받았다. 고정식 무단단속시스템은 9월 현재 차량통행이 많은 교차로 등 52곳에 설치돼 있다.

이번 알림서비스 확대에 이동식 차량의 단속범위에 있는 주정차 차량의 소유자도 단속사실을 문자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이동식 단속차량의 경우 주정차 금지구역 어디든지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알림서비스 확대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비스 신청은 교통과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시 홈페이지 교통정보에서 직접 등록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교통 혼잡지역 불법 주정차 차량의 신속한 이동을 유도해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것이 사전알림서비스 확대 시행의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교통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담양군, 가축사육제한거리 해법 찾는다

일반주민과 축산인 대상 설문조사...조례 개정 추진

담양군은 최근 악취발생으로 주민 생활권이 침해되고 있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일반주민 4,434명과 축산인 630명을 대상으로 주요 가축의 사육제한거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지난 지난달 10일부터 10일간 진행했다.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는 68%인 3,033명이 응답했

으며, 응답 결과는 소(젓소) 500m~600m(1,577명, 51%), 돼지 1,000m(1,759명, 57%), 염소 500m와 700m(1,940명, 63%), 기타 가축(말, 닭, 오리 등) 500m~600m(1,904명, 62%)로 과반수 이상의 주민이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민가로부터 최소 500m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618명(97.9%)의 축산인 응답 결과는 소(젓소) 100m~200m(460명, 74%), 돼지 500m와 1,000m(380명, 61%), 염소 200m와 500m(367명, 59%), 기타 가축(말, 닭, 오리 등) 100m~200m(334명, 54%)로 응답해 현재 관련 조례에서 제한하고 있는 거리를 유지하지는 의견으로 분석됐으나 돼지 등 일부 가축의 경우 축산인들 또한 제한거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기도 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영암군, 한우농가 대상 축산 맞춤형 종합컨설팅 추진

축산농가 기술 경쟁력 향상과 현장으로 사할 해결

영암군농업기술센터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6일 영암군농업기술센터에서 왕인한우연구회원 등 농가 40여명을 대상으로 개량, 번식, 사양관리, 축산환경, 가축질병 조사로 분야에 대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종합컨설팅을 실시하였다.

올해 8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축산

맞춤형 종합컨설팅은 사전 기술수요 조사를 통해 각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해 1:1농가 개별 컨설팅과 심층상담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농가별 현재 문제점에 대해 보다 쉽게 접근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한우사육에 대한 의문사항을 전문가와 토론형식으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농가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농업기술센터 정찬명 소장은 "컨설팅은 축산물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기술경쟁력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장기술지원이 필요한 농가는 추후 현장방문 컨설팅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여수시, 추석명절 물가안정 행정력 '집중'



여수시가 추석명절 물가안정대책 민관합동 간담회를 열어 민간차원의 자발적 동참을 요청하는 등 물가안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6일 문수청사 회의실에서 12개 기관·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물가안정대책 논

의 간담회가 열렸다. 참여기관은 지역 농·수·축·유휴, 목욕업·외식업·숙박업·미용사회 등 직능단체, 소비자단체, 3개 대형마트 등이었다.

시는 이날 참여 기관·단체들에게 추석 물가안정대책과 개인서비스요

구 안정방안을 설명한 후 서민가계 안정을 위해 물가 안정에 자발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시는 이달 3일부터 30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종합상황실도 가동하고 있다.

상황실은 사과, 배, 무, 배추, 소고기 등 32개 명절성수품을 종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품목별 수급상황과 가격동향을 지속 조사하고 있다.

진통시장·유통업체가 담합행위 등 불공정 상행위를 하지 않는지 지도·점검하는 것도 상황실 임무 중 하나다.

농·수·축산물의 경우 분야별로 편성된 지도점검반이 매점매석, 계량위반, 원산지·가격표시 위반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추석명절 물가안정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물가안정과 불공정 상행위 근절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친환경 천연 장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잔디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맛과 향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회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율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위 관리 병행